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motional Design Method of Steven Holl

김명옥* / Kim, Myoung-Oak

Abstract

The subject of 'Emotional Design' is appeared recently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design field. 'Emotion', which has been underestimated since Kant and should be reevaluated from now on, is one of the basic two elements with reason which constitutes human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emotional design method appeared in the works of Steven Holl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influencing architects because of his unique methodology in developing the emotional 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Emotional aspects were implied in his concepts by the way of emphasis on phenomenology in dealing with question of perception
- 2) Emotional aspects were interwoven in his form and space as related to his concept.
- 3) Emotional aspects were shown in his way of developing his ideas with water coloring, in deriving his concepts from other genre(especially from literature) and in the articulation of details.

As a result, his unique way of implying emotional aspects which is coming from in-depth research of human nature as well as his own instinct were all interwoven in concept, form, and space together as a total way of thinking.

키워드 : 스티븐 홀, 감성 디자인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최근 디자인 장르에는 21세기 디자인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감성디자인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20세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 기능주의 디자인의 이성적,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후 포스트모던 상황 하에서도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성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디자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디자인 환경과 상황 하에서 인간 본연의 상태에 접근하는 인공환경을 디자인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감성 디자인의 문제는 디자인 의식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감성이라는 용어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¹⁾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며 감성디자인은, 나카마찌 미츠히코가 감성공학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감성과 이미지를 물리적 디자인 요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겠다.²⁾ 감성이란 원래 이성과 함께 인간성을 이루는 두 개의 요소로서 칸트 이후 이성에 의해 다소 평가되었고 이제는 회복되어야 하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최근에 와서 감성디자인의 문제는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1998년 실내디자인 학회에서 <21세기 실내디자인의 비전-감성디자인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주최하는 등 감성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는 있으나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바람직한 결과를 제시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내와 건축 디자인의 설계방법에서 감성적인 측면을 도입하여 독특한 개념과 강한 형태 그리고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공간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인 스티븐 홀(Steven Holl)의 작품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1947년 미

*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조교수

** 본 논문은 1999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막스 뮐러, 알로이스 할더, 철학소사전, 강성위 옮김, 이문출판사, 1988, p.14

2)나카마찌미츠히코, 감성공학, 김연민 옮김,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4, p.4

국 워싱턴 주에서 태어나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로서 그의 초기 개념을 이끌어내는 과정 등의 설계방법에서의 신선함과 재료 사용에 대한 섬세함 그리고 빛에 의한 효과 등으로 그의 작품에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순간에서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감성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스티븐 홀의 작품에는 감성적 측면 이외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의 지적 사고 방법과 철학적 태도 자체에도 감성적 요소가 공존하므로 그의 작품에서 감성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미에 대한 그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판단한다. 스티븐 홀은 자신만의 독특한 직관과 디자인 방법으로 공간에서의 개개인의 경험 가능한 정서를 보편적 인식의 차원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으로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방법을 추구하며 건축디자인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가 동시대의 다른 건축가와 차별화 되는 점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스티븐 홀의 디자인에서 감성적 측면을 연구하고 이러한 감성적 측면을 다루는 그의 독특한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그의 건축디자인이 현대 건축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감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스티븐 홀의 디자인 개념, 디자인 형태, 디자인 공간에서 감성과의 관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그의 독특한 방법론을 그의 작품을 통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작품 중 감성적 측면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판단되는 시애틀 대학 내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The Chapel of St. Ignatius, Seattle)와 최근 발표작인 헬싱키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Helsinki)을 네 요소의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고 기타 각 요소의 측면에서 독특하다고 판단되는 그의 작품을 선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스티븐 홀의 작품은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보다 실제의 공간에서 주는 감동이 크다. 이것은 그의 공간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인간의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인은 문헌을 통해 스티븐 홀의 작품을 연구한 것을 토대로 시애틀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와 뉴욕의 스토아 프론트 갤러리(Store 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등은 실사에 의해 연구 조사하였고 Y 주택(Y House, Catskill Mountains, New York)은 99년 7월 뉴욕시의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전시에 출품되었던 도면과 모형 그리고 기타 드로잉에 의해 연구 분석하였다.

2. 스티븐 홀 작품에서의 감성적 측면

2.1. 감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용선에 의한 니체의 미의 세계의 이론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감성을 통하여 이룩되는 예술적인 두 세계, 즉, 아폴

론적 세계와 디오니소스적 세계가 존재하였으며, 아폴론적 예술의 세계는 이지의 세계이며 디오니소스적 예술은 도취(추상)의 세계이다.”³⁾라고 한다. 그는 인류의 삶은 이로써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성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등장으로 인류는 이성문화를 갖기 시작했고, 이는 감성의 세계를 탄압하게 되어 결국 인간은 중요한 감성의 세계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⁴⁾ 사실 감성은 여성의 상징으로 이성은 남성의 상징으로 이분법적으로 대립 양상을 띄면서 감성은 이성에 의해 오랜동안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김용선에 의한 과학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지식세계의 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적 세계에는 수직적 지식세계와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수평적 지식세계가 있다. 니체의 감성의 세계는 정신력이 비약될 수 있는 그러한 수직적 지식의 세계에 해당되며 이론적 지식세계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임으로 해서 수평적 지식이 된다. 이론적 지식은 합리성을 근거로 한 것이며 아름다움의 지식은 비합리성을 근거로 이룩되는 지식으로 인간은 상상력에 의하여 황홀한 지식으로부터 아름다움의 지식을 이끌어낸다.”⁵⁾고 한다. 디자인의 세계는 니체의 관점으로는 아폴론적 세계이며 스티븐 홀이 그의 감성적 건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감동의 순간을 통하여 수직적 지식세계에서의 비약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과 다름아니다. 스티븐 홀은 인간이 시공간 안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황홀한 지식’, 즉, 감동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아름다움을 그의 건축을 통하여 표현하려고 하였다.

인간은 자극에 대해 오감을 통하여 감지하고 심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감성이란 이러한 과정의 전반적인 때로는 직관적인 능력을 말한다.⁶⁾ “감성이란 물리적 작용에 의한 지각(perception)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학적 체험”⁷⁾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과 육감을 통하여 아름다움에 관한 지식을 이끌어낸다. 스티븐 홀의 현상학이란 것도 공간 안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정서의 객관화된 경험과 관계되는 것으로 감성이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2.2. 스티븐 홀의 디자인개념

스티븐 홀은 다른 어떤 건축의 요소보다도 개념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⁸⁾ 그러나 그의 개념은 단순한 언어적 개념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는 현상에 대한 인간 정서의 경험적 측면이 강하게 혼합된 개념이다. 홀에 있어서 현상학이란, 개인적 차원을 넘

3) 김용선, 감성과 이성의 만남, 민중출판사, 서울, 1995, p.12

4) 앞의 글, p.12

5) 앞의 글, p.13

6) 이순요, 양선모 공저, 감성공학, 청문각, 서울, 1996, p.5

7) 앞의 글, p.5

8) Levene, Richard, Steven Holl, El Croquis 78, Barcelona, 1996, p.78

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인식과 관련된 것⁹⁾으로 공간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는 것을 요구하는, 즉,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논리의 세계를 초월한다. 스티븐 홀에 있어 건축이란 어떤 현상과 그것이 엮여져 만들어지는 개념이 교차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했다.¹⁰⁾

스티븐 홀은 개념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루이스 칸(Louis Kahn)의 영향을 받았다. 루이스 칸은 디자인 과정에서 공간의 가장 기본적 본질에 대한 문제의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그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추구했다. 루이스 칸은 “근원으로서의 개념의 철학적 성격”¹¹⁾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깊이가 느껴지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반면, 스티븐 홀은 디자인 과정에서 최초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개인적 깨달음의 순간의 감동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 그것이 개념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스티븐 홀의 작품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의 흥분과 같은 감성적인 감동이 있다.

“시공간 안에서의 감동은 건축에 대한 이론 이전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 인지는 논리 이전의 것이다.”¹²⁾라는 홀의 현상에 대한 강렬한 경험은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강한 느낌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단어는 ‘아!’ 라는 외침의 단어이며 감탄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위대한 느낌이다.....사람은 감탄하는 순간 깨닫는다. 그것은 감탄할 때 모든 자연의 법칙을 경험하기 때문이다.”¹³⁾라고 한 루이스 칸의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감성에서 느끼는 일종의 깨달음의 순간의 총체적인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적 단계 이전의 감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단지 스티븐 홀은 칸의 감동에 대한 원초적 사고를 오감의 감각적 언어로 구체화시켜 개념과 연결시킨 것이다.

스티븐 홀이 건축에서 인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은 대학 재학 3년 중 로마에서 수학하는 동안 6개월간 팬티온(Pantheon)을 왕래하며 받게 된 빛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빛은 그 후로도 스티븐 홀의 작품에서 인식의 현상학적 개념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스티븐 홀의 작품을 규정하는 몇 가지 개념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매 프로젝트마다 개념이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마다 개념을 이루는 요소가 복잡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티븐 홀은 “디자인 작업이란 모든 실마리를 한 데 꿰는 방법을 알게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관적인 인

식과 실용적인 면이 한데 엮여지는 때 개념의 현상적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¹⁴⁾라고 말한다. 사실 스티븐 홀의 작품이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디자인 개념이 감성적 현상학을 포함하며 그의 건축 형태와 실내공간과 디테일이 그의 감성적 현상학을 포함하는 개념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의 일곱 개의 “빛의 병(bottles of light)”¹⁵⁾이라는 스케치에서 비롯된 초기 개념은 <그림 1> “각기 다른 빛의 모임(Gathering of different light)”¹⁶⁾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발전된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예수교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숫자로 각각의 병은 카톨릭 의식 또는 예수교회의 전도에 상응한다.¹⁷⁾ 병과 빛과 종교에서의 의미가 모두 한데 어우러져 전체 프로젝트의 개념을 형성하며 실내 공간에서의 여섯 가지 빛¹⁸⁾의 퍼짐은 인간 정서를 자극하여 감동을 준다.

또한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는 “유전공학에서의 염색체 교환”¹⁹⁾에 비유될 수 있는 ‘키아즈마’²⁰⁾의 교차의 개념이 건물의 형태와 계단 및 실내공간 그리고 작은 조명의 형태에까지 반영되어 방문객은 교차되는 공간에서 교차되는 형태를 보며 다점 투시도²¹⁾와 중력을 경험하면서 교차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교차의 개념은 스티븐 홀의 초기 개념 스케치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미술관과 주위 환경의 관계이기도 하며 문화의 선과 자연의 선의 암시이기도 하고 직선과 곡선의 현실적인 교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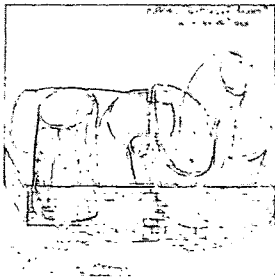
건축은 철학이나 예술 혹은 어학이론과 달리 공간에서의 직접적 물리적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학문으로²²⁾ 스티븐 홀은 공간에서의 경험적 인식을 통해 건축의 물리적 성질을 탐험한다. 스트레토 하우스에서는 무거운 콘크리트 댐 사이를 걸어 가벼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현상의 탐구이며, 마사의 포도밭 주택에서는 나무의 골격사이로 바다의 수평선을 보는 현상의 표현이며,²³⁾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빛의 퍼짐의 효과를 느끼는 현상이며,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는 다점 투시도를 통해 중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다.

이같이 스티븐 홀은 전략적으로 현상의 특성을 개념과 연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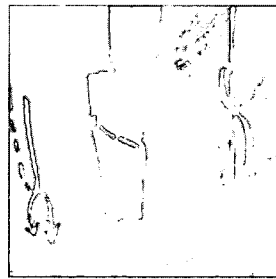
9)리처드 잉거술, Steven Holl, Context 3 Architect 05, 박주영 옮김, 명문사, 서울, 1999, p.18
 10)Holl, Steven, Pre-theoretical Ground, Steven Holl, Birkhauser, Basel, Switzerland, 1993, p.22
 11)Levene, Richard, 앞의 글, p.17
 12)앞의 글, p.21
 13)Lobell, John, Between Silence and Light, Shambhala, Boulder, 1979, pp.8-12

14)Levene, Richard, p.13
 15)리처드 잉거술, 앞의 글, p.14
 16)Jacobson, Clare, The Chapel of St. Ignatiu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9, p.14
 17)Fellhauser, Christine, Contemporary American Architects, Volume 4, Taschen, Cologne, 1998, p.86
 18)하나는 외부 연못에서 투영되는 빛으로 실내는 사실상 여섯 가지 빛의 모임이다.
 19)리처드 잉거술, 앞의 글, p.14
 20) ‘염색체 교차’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키아즈마의 은유적 개념이 미술관에서 강렬한 의미를 띄게 되면서 미술관 후원자들은 그 이름을 ‘키아즈마’ 로 바꾸기로 하였다.
 21)원래 동양화에서 산수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한 점의 투시도법이 아닌 보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른 눈높이 변화로 달라지는 여러 소실점의 투시도법이다.
 22)Levene, Richard, p.17
 23)앞의 글, p.15

고24) 그 과정에서 감성을 디자인의 수단으로 객관화시켜 그것을 건축 개념의 일부로 접합시켰다.



<그림 1>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
개념스케치 '빛의 병'



<그림 2>
헬싱키 현대미술관
개념 스케치

2.3. 스티븐 홀의 디자인형태

스티븐 홀의 디자인 형태는 전반적으로 근대적 경향의 매스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개념이 강조되는 단순한 외형을 가지는 반면 부분들의 개별성 강조로 다양함을 느끼게 하는 정교한 디테일을 가진 감각적 형태이다. 스티븐 홀에 있어 형태는 본질적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면으로서²⁵⁾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념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성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코헨아파트, 큐비스트 아파트, 페이스 쇼룸(Pace Showroom) 등의 인테리어가 중심이 되는 초기 작품에서는 데 스틸(De Stijl)의 영향을 느끼게 하는 조심스러운 면 비례와 구성이 두드러지나 최근에 발표되는 건축의 표현 형태는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어 형태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시에틀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일곱 개의 '빛의 병' 이라는 초기 개념에 따라 교회의 형태를 원형으로 할 것인지 좁은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초기의 논란에 대해 이 교회가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의 배치와 어울리도록 사각의 평면에 지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박스의 외형을 가지면서도 실내에 있어서는 원형 느낌의 좌석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개별적 천장의 형태와 빛의 효과로 하나의 공간 내에서 각기 다른 영역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적 지붕의 형태는 일련의 철 파이프를 구부리는 방식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정적인 이유로 사용한 "틸트 업(tilt-up) 콘크리트 슬라브 패널"²⁶⁾의 섬세한 마감 방법은 촉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형태를 만

들어냈다. 거친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각적인 두꺼운 오크 문에는 빛을 포착하기 위한 일곱 개의 타원형 렌즈가 끼워져 있고, 브론즈 손잡이와 단상을 비롯한 가구 디테일에서는 섬세한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화장실 옆 락카 문의 형태에서는 뉴욕의 큐비스트 아파트에서 보여준 조심스러운 면 비례와 구성을 엿볼 수 있다.

헬싱키 현대미술관의 경우에서도 두 개의 덩어리가 뒤엉켜 만드는 매스감, 즉, 교차의 은유적 개념이 형태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형태는 보다 강렬한 의미를 띠게 된다.<그림 3> 헬싱키는 북위에 위치하여 햇볕이 낮게 들어오지만 완만한 곡선의 단면을 이용하고 전시실의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여 자연 채광이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²⁷⁾ 헬싱키의 중심지는 대부분 그리드 형태에 부합되는 박스 형의 건물이 주류를 이루어 전면의 형태는 박스형을 따랐지만 미술관 배면의 곡선의 형태는 자연의 곡선과 알토의 곡선의 형태가 반영되어 미술관은 주위 환경을 반영하는 두 개의 대조적 형태가 하나로 얽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형태는 개념적인 면을 한층 강화시킨다. 자유스러운 곡선 형태의 경사면과 박스형의 수직 벽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입구 로비는 뒤엎힌 두 가지 기하학의 대조를 보여준다.²⁸⁾ 여러 갤러리로 이어지는 선적인 통로들이 이 공간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 사람들은 이 곳에 대한 특별한 시각적 공간적 경험을 하게 된다.

2.4. 스티븐 홀의 디자인공간

스티븐 홀의 디자인공간 역시 그의 개념,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각적 체험의 공간과 중첩된 가변적 공간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의 내부 공간은 전반적인 교차의 개념과 연결된 것으로 연속되는 뒤틀린 곡선으로 인해 흐르는 듯한 공간 안에서 방문객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다점의 투시도를 통하여 중력과 시간의 신비로운 삼차원적 체험을 하게 된다. 모든 전시실은 자연조명을 받기 위해 각기 다른 각도의 벽을 가진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세면은 직각으로 되어있고 한 면은 곡선으로 되어 있어 어떠한 예술 작품이 어떻게 놓이더라도 작품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융통성 있는 공간이다.²⁹⁾ 헬싱키 현대미술관은 기능적으로 이벤트, 공연, 세미나, 공식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열린 다목적 예술공간의 역할을 한다. 첨단 영상기자재를 구비한 강당의 뒤흘은 유리 마감재를 사용하여 외부 통로에서 강당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에서도 또한 독특한 외부조망을 관람할 수 있어 미술관과 헬싱키의 연계를 두드러지게 한다. 헬싱키 현대미술관은 건축과 실내디자인, 미술품 그리고 문화와 도시생활과 주위 환경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시에틀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와 디이 쇼 회사<그림 4>는 감각

24) 앞의 글, p.18

25) Holl, Steven, 앞의 글, p.23

26) Fellhauser, Christine, Contemporary American Architects, Volume 4, Taschen, Cologne, 1998, 86

루돌프 신들러(Rudolf Schindler)가 L.A.의 Kings Road 주택에 적용한 공법으로 벽체 패널을 미리 만든 다음 일으켜 세워 제 위치에 놓는 일종의 pre-cast 콘크리트 패널이다. 스티븐 홀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둥기를 이용해 현장에 패널을 세운 다음 조각의 연결 부분은 창문으로 갈고리 흔적은 청동을 덧 씌워 마감하였다.

27) 리처드 잉거술, 앞의 글,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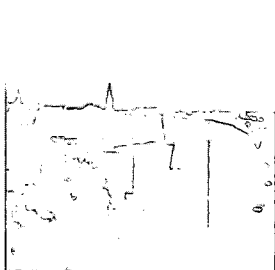
28) 리처드 잉거술, 앞의 글, p.14

29) 앞의 글,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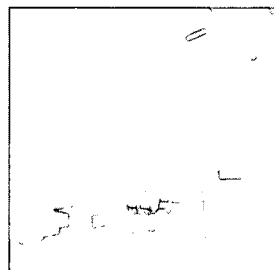
적 체험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서 촉감 및 향기, 온도에 대한 스티븐 홀의 관심을 보여준다. 시애틀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의 구멍이 뚫린 입구의 두꺼운 문을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감각적 체험은 교회 안에서 여섯 개의 지붕 곡선으로 흩어지는 신비스러운 빛에서 정점을 이루어 공간 안에서의 정신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그림 5> 이것은 롱샹 교회(Ronchamp Chapel)에서의 오색찬란한 빛의 조화와 강렬함을 가진 공간으로서 디이 쇼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빛의 현상적 특질의 섬세한 적용이었다. 다만, 디이 쇼 회사가 컴퓨터로 금융을 다루는 회사인 만큼 한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차가우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온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찬란하면서도 따뜻한 온도감을 느끼게 한다.

뉴욕의 스토아 프론트 갤러리는 중첩된 가변적 공간의 대표적 작품으로 건물 파사드의 개폐방법에 따라 외부가 내부로 침투 또는 내부가 외부로 돌출되는 중첩된 공간을 만들며, 1/2만 열었을 때와 모두 닫았을 때는 공간이 변모되는 가변적인 공간을 만든다.<그림 6> 밤에는 또한 각기 다른 모양의 문틈 사이로 외부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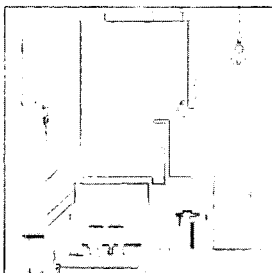
후쿠오카 프로젝트에서는 28가구 모두 비슷하게 보이는 형태 속에서도 각 세대가 다른 공간의 다양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는 이동 가능한 칸막이의 변화로 인하여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양의 '선' 철학의 '무'의 개념이 내포된 중정은 감성을 이용하여 없음의 미학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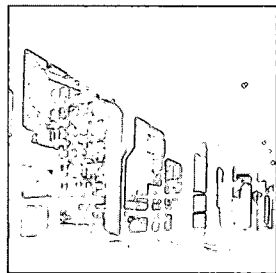
<그림 3> 헬싱키 현대미술관 외부 전경



<그림 4> 디이 쇼 회사 인테리어



<그림 5>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 인테리어



<그림 6> 스토아 프론트 갤러리 인테리어

2.5. 스티븐 홀의 디자인방법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방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첫째, 초기 수채화를 통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둘째, 개념에 물질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형을 사용한다는 것, 셋째, 타 장르(많은 경우 문학)로부터 개념을 유추한다는 것, 넷째, 조명의 효과와 디테일에서의 섬세함이라 할 수 있다.

스티븐 홀은 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대지에 대한 영감 및 건물의 추상적인 형태 그리고 색채까지도 즉흥적 수채화로부터 개념을 잡아 그것을 발전시킨다. 수채화의 투명성으로 인해 빛자극으로 빛의 효과를 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각, 촉각, 청각, 후각까지를 포함하는 오감의 공간에서의 “경험의 현상학(phenomena of the experience)”³⁰⁾을 탐구하고 표현한다. 스티븐 홀은 이와 같이 개념과 현상의 특징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수채화를 사용하여 감성적 효과를 얻는다.

헬싱키 현대미술관의 개념적 특성과 에이트리움(atrium)에서의 공간의 질은<그림 7> 이-같은 수채화 스케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그림 8> 공간과 표면의 상호관통의 복잡성을 수채화로 표현하여 빛이 공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공간이 얼마나 부드럽고 인간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등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공간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감성적 측면까지를 수채화를 통하여 실험할 수 있었다. 박스 안의 ‘빛의 병’이라는 개념을 가진 시애틀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도 수채화 그림으로 초기 개념을 얻을 수 있었고 수채화 그림으로 인하여 공간 내에서 빛의 퍼짐의 정도를 상상할 수 있었다. Y주택에서도 초기 수채화 그림을 통하여 공격 공간과 사적 공간, 낮과 밤의 활동 그리고 교차 가능한 공간까지도 연구할 수 있었다.

스티븐 홀의 작품에서는 개념에 물질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형이 사용되며 모형에 쓰인 재료가 때로는 실제 건물의 마감재료로 발전되기도 한다. 스티븐 홀에 있어서 디자인이란 물론 개념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물질로서 완성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 개념과 물질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존재에서 의미의 본질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³¹⁾ 그래서 그의 대부분의 모형에서 질감과 재료 자체에 대한 홀의 진지한 탐구정신과 감각적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대서양을 바라보는 마사의 포도밭(Berkowitz-Odgis House, Martha's Vineyard) 주택에서는 고래 등뼈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모두 가는 나무로 제작하여 개념을 강화시키기도 하였으며 크랜부르크 과학연구소(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 Michigan) 증축 프로젝트에서는 동으로 된 모델 표면에 부식된 녹을 입히는 제작과정³²⁾ 실제 건물에 적용하여 감각적 차원을 높였

30)Levene, Richard, 앞의 글, p.15

시공간 안에서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주관적인 인식을 객관화시켜 현상의 특성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31)Levene, Richard, 앞의 글, p.13

다. 또한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모형을 통하여 빛의 퍼짐의 강도와 색상을 연구하여 감각적 차원을 높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붕의 형태와 재료도 결정할 수 있었다.

스티븐 홀은 개념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많은 경우 타장르(대부분의 경우 문학)으로부터 근원을 찾는다. 이는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풍부한 소재의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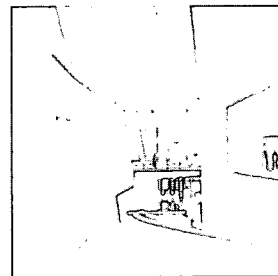
1988년에 지어진 마사의 포도밭 주택에서는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딕(Moby Dick) 문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³²⁾ 고래뼈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그림 9> 고래뼈와 같은 느낌의 나무 프레임 구조와 그 그림자로 인하여 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고래 몸통으로부터는 공간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텍사스 스트레토 주택(Texas Stretto House)에서는 발독의 4소절 음악에서 개념을 찾아³⁴⁾ 공간의 무거움과 가벼움, 어두움과 밝음의 리듬감을 구성했다.<그림 10> 또한 헬싱키의 현대미술관에서는 '키아즈마'의 교차의 개념으로부터 형태와 공간이 교차하는 다양한 경험의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시에틀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의 일곱 개의 '빛의 병' 개념도 성서에서 연유한 빛의 개념과 숫자로 성 이그나티우스의 '상이한 방법들이 상이한 사람들을 돕는다' ³⁵⁾는 말로부터 다른 속성의 빛과 상이한 구조의 지붕들이 모여 하나의 지붕을 이루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그림 11>

스티븐 홀은 빛의 효과와 디테일의 섬세함 또한 디자인 방법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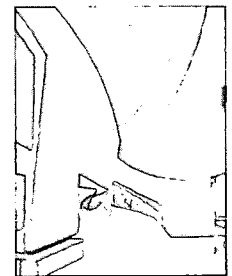
빛의 효과는 디이 쇼(D.E.Shaw \$ Co.) 사무실과 시에틀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 정점을 이룬다. 디이 쇼 사무실의 인테리어에서 사용했던 빛의 퍼짐의 현상학적 방법(자연조명을 색상이 있는 벽에서 받아 다시 반사시키는)<그림 12>을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 더욱 극적으로 사용하여 교회의 실내를 각기 다른 색상의 자연조명을 가진 듯 신비한 느낌을 자아낸다. 행렬(procession)과 나르텍스(narthex)에서는 자연광의 자연색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네이브(nave)의 동쪽에는 노란색이, 서쪽에는 청색의 빛이 사용되었다. 또한 성찬예배실(blessed sacrament)에는 오렌지색이, 성가대 석(choir)에는 초록색이, 고백실(reconciliation chapel)에는 자주색의 빛이 사용되었다.³⁶⁾ 그리고 야간에는 실내에서 새어 나오는 오색찬란한 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교회 주위는 찬란한 빛의 조화를 이룬다.<그림 13> 헬싱키 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자연채광의 방법에 있어 섬세함을

보인다. 전시실은 자연채광이 다각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완만한 곡선의 벽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시실의 형태와 크기도 자연 조명의 침투를 위해 각기 다르게 하였다. 또한 수평방향의 햇빛이 굴절되어 건물 중심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곡선 벽에는 반투명 유리의 조절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곡선의 입체적 꼬임의 형태와 공간 내에서의 빛의 반사를 통하여 상하층 25개의 전시공간 모두 자연채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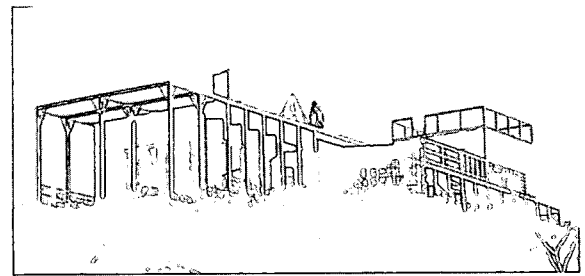
수공예적 디테일의 섬세함은 초기 코헨 아파트(Cohen Apartment)와 큐비스트 아파트(Cubist Apartment)의 벽장 문, 손잡이, 조명기구로부터 최근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와 헬싱키 현대미술관의 벽 패널 마감, 입구 문, 가구, 락카 문, 조명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젝트에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측면이 한층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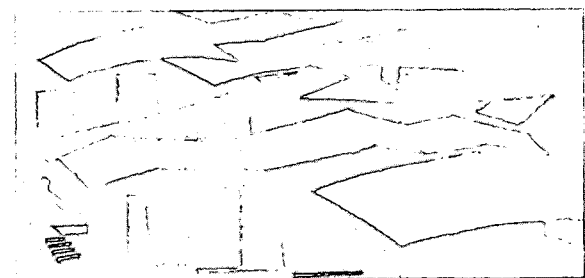
<그림 7>
헬싱키 현대미술관
인테리어



<그림 8>
헬싱키 현대미술관
에이트리움 스케치



<그림 9> 마사의 포도밭 주택



<그림 10> 스트레토 주택

32)리처드 잉거술, 앞의 글, p.18

33)Levene, Richard, 앞의글,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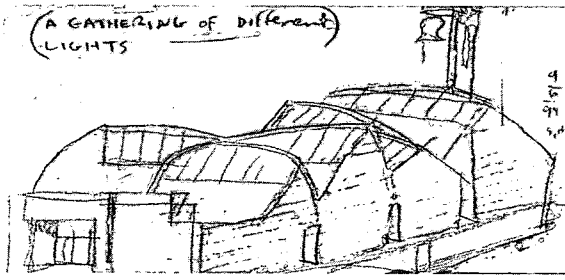
해변에 놓인 고래뼈를 건조한 곳으로 옮겨 구조를 만든 다음 가죽을 잡아 당기고 나무껍질을 발라 집을 지었다는 원주민의 풍습을 묘사한 멜빌의 모비딕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34)Levene, Richard, 앞의 글,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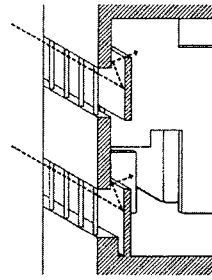
발독의 현악곡 '충격과 첼리스트 음'이라는 중복적인 Stretto의 네 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35)리처드 잉거술, 앞의 글,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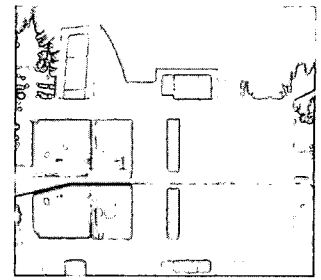
36)앞의 글, p.76.



<그림 11>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 지붕 스케치



<그림 12> 다이 쇼 회사 빛의 반사 Diagram



<그림 13>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 전경

<표 1>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감성적 측면에 대한 비교 분석

분류	특징	스티븐 홀의 작품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	헬싱키 현대미술관	스트레토 주택	마사의 포도밭 주택
디자인 개념	인식의 현상적 특징 포함 모든 것이 개념과 통합	빛의 퍼짐의 효과를 느끼는 현상 병과 빛과 종교에서의 의미 통합	다점 투시도로 중력 경험하는 현상 환경, 형태, 공간, 디테일에서 교차의 개념과 통합	무거움과 가벼움의 이동 현상 빛, 형태, 움직임의 강약이 사소설 음악의 개념과 통합	수평선 보는 현상 형태, 공간, 시공의 의미가 고래뼈 개념과 통합
디자인 형태	근대적인 단순한 매스감 개별성 강조 디테일의 감각적 형태	단순한 박스의 매스감 개별적 지붕의 형태, 각기 다른 색의 빛 벽패널, 입구문, 가구, 락카운 등	장방형과 자유 곡면체의 매스감 장방형과 곡선형의 강한 대조 입구문, 난간, 조명기구, 빛 조절장치	4개의 장방형 매스 + 지붕들 개별적 4개의 매스, 각기 다른 지붕 형태 창문, 창틀, 벽면의 구성	장방형 매스 + 프레임 높이와 밀도의 차이로 인한 개별성 프레임의 미완성 느낌 형태
디자인 공간	감각적 체험의 공간 중첩된 가변적 공간	영적 체험의 공간 / 시각, 촉각, 온도 체험 하나의 지붕 안에 여러 영역 중첩	시간과 중력의 삼차원적 체험공간 다양한 행사를 위한 다목적 가변공간 (1층로비)	소리와 리듬의 체험공간 / 명암, 압력의 체험 분절과 연속의 리듬을 위한 중첩 공간	시적 체험의 공간 / 밀도, 명암의 변화 체험 프레임이 중첩된 가변공간
디자인 방법	수채화를 통해 개념 발전 타장르로부터 영감 빛의 효과 / 디테일의 섬세함 개념에 물질성 표현 모형	'빛의 병'의 초기 수채화 성서로부터 영감 일곱 개의 각기 다른 색의 빛 벽마감, 조명 방법, 문, 가구 등 모형으로 빛의 색상과 질, 지붕의 재료 실험	교차와 에이트리움의 초기 수채화 그리이스어 '키아즈마'로부터 영감 전시공간 모두 자연채광 침투 입구문, 난간, 조명기구, 빛조절장치 등 부식된 동판의 적용, 유리의 질감	초기 개념 수채화 발독의 음악으로부터 영감 어두움과 밝음의 강약 효과 창문, 창틀, 벽면의 구성 철판으로 된 지붕 모형	모비 딕으로부터 영감 빛과 그림자의 효과 프레임과 난간의 다양함 가는 나무로 제작된 모형 철판으로 된 지붕 모형

3. 종합 및 결론

이상과 같이 스티븐 홀의 디자인 개념, 디자인 형태, 디자인 공간, 디자인 방법에 나타난 감성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스티븐 홀의 디자인 개념에서는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는 현상에 대한 인간 정서의 경험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빛의 퍼짐의 효과를 느끼면서,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는 다점 투시도로 중력을 경험하면서, 스트레토 주택에서는 무거운 공간에서 가벼운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사의 포도밭 주택에서는 수평선을 보면서 느끼는 현상에 대한 경험적 측면이 그의 개념과 교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의 디자인 개념은 형태, 공간, 방법등과 한데 어우러지면서 더욱 강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티븐 홀의 디자인 형태는 정직성과 단순성을 가짐으로 해서 모

더니즘의 성향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개념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발견한 독특한 매스감의 덩어리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성이 강조되었으며 디테일에 있어서는 정교함을 가진 감각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박스의 매스감을 가지면서 개별적 지붕의 형태와 각기 다른 색의 빛으로 개별성이 강조되었으며 디테일에 있어서는 감성을 자극하는 감각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는 장방형과 자유 곡면체의 대조되는 형태가 교차되며 이루는 매스감과 디테일의 감각적 섬세함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티븐 홀의 디자인공간 역시 그의 개념,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감성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공간의 특징으로는 감각적 체험의 공간과 중첩된 가변적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는 시각의 차원 뿐아니라 촉각 및 온도까지도 느끼게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의 공간을 가능케 하였고 헬싱키 현대미

술관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소실점의 효과로 인해 중력의 삼차원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티븐 홀의 디자인방법의 특징으로는 수채화와 모형 그리고 타 장르와의 관계를 통하여 개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의 직관과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로 개념과 형태, 공간을 연계시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빛과 디테일을 다루는 과정에서 감성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었다. 특히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에서의 '빛의 병'의 개념과 헬싱키 현대미술관에서의 공간의 질은 그의 독특한 수채화 기법에 기인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모든 특징들은 시공간에서의 인간 감성에 대한 스티븐 홀의 깊은 탐구정신과 타 장르에 대한 폭 넓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적 직관과 디자인 방법을 이용하여 감성과 이성이 교차하는 새로운 차원의 현대건축을 창조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건데, 20세기 전반의 현대건축은 상업주의의 잘못된 적용으로 초기의 의미는 상실되고 획일화되고 진부한 건축들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형식론적인 건축이 지배적이 되었다. 국내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여 이들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철학적 사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스티븐 홀의 인간 본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정신과 철학적 태도가 우리에게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참고문헌

1. 김용선, 감성과 이성의 만남, 민중출판사, 서울, 1995
2. 나카마찌미쥬오, 감성공학, 김연민 옮김, 울산대학교 출판부, 울산, 1994
3. 리차드 잉거술, Steven Holl, Context 3 Architect 05, 박주영 옮김, 명문사, 서울, 1999
4. 막스 웰러, 알로이스 할더, 철학소사전, 강성위 옮김, 이문출판사, 서울, 1988
5. 빌 라시, 세계건축가 100, 시공문화사 편집부 옮김, 시공문화사, 서울, 1997
6. 이순요, 양선모 공저, 감성공학, 청문각, 서울, 1996
7. Yoshio Futagawa, Steven Holl, GA Document Extra, 집문사 편집부 옮김, 집문사, 서울, 1996
8. Fellhauser, Christine, Contemporary American Architects, Volume 4, Taschen, Cologne, 1998
9. Holl, Steven,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1
10. Holl, Steven, Inter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1. Holl, Steven, Steven Holl, Birkhauser, Basel, Switzerland, 1993
12. Jacobson, Clare, The Chapel of St. Ignatius, Princeton Architectural
13. Jacques, Michael, Steven Holl, Birkhauser Verlag, Basel, 1996
14. Levene, Richard, Steven Holl, El Croquis 78, Barcelona, 1996
15. Levene Richard, Steven Holl, El Croquis 93, Barcelona, 1998
16. Lobell, John, Between Silence and Light, Shambhala, Boulder, 1979
17. Riley, Terence, The Un-Private Hous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99

<접수 : 2000. 1. 28>